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성경: 마태복음 4장1-4절

Tag: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4:1-4)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8:3)

지금 우리나라는 떡방 천국이 되었다.

전국민을 셰프로 만들겠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위기다.

요리를 못하는 남자는 멋있는 남자가 아닌 듯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방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래다. 그래도 과거에는 가수들이 나왔는데(전국노래자랑 빼고,) 요즘은 가수들보다 일반인의 노래가 더 많이 나온다. 가수들은 코치역할을 한다. 노래경연을 진행하지 않는 방송사는 없는 듯하다. (TV 조선은 아예 가수를 만들어내고 매일 출연시키며 스타를 양성하고 있다. 방송국이 매니저가 된 셈.)

좀 아이러니 하지만, 진화를 거듭하면서 방송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다이어트 방송이다.(다른 차원의 떡방) 어김없이 의사들이 몇분 등장한다.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왜 살이 찌 수 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실제로 방송을 위해서 실제 체험단이 등장하기도 한다. 방송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옆 쇼핑채널에서는 건강에 대한 방송 주제에 걸맞는 것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되는 건강 다이어트 식품 또한 매우 잘 준비된 방송이다. 지금 바로 주문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손해가 날 것 같다.

분명히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본질은 아닌 것 또한 틀림이 없다. 그것은 삶의 한부분(식생활, 음식문화)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문화이다.

물론 먹방은 동물들의 먹이찾기가 아니다.(정글의 법칙만 빼고) 음식 섭취가 생존을 위한 동물적 본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으로 음식문화를 폄훼하는 것이다.

이미 인류는 생존을 위해 먹기 보다는, 삶을 즐기기 위해 공복감을 역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생겼다. 음식문화에 대한 중독증이 보편화 되었다. 만족을 위한 음식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만족 포인트의 완급조절에 실패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사람의 삶에는 여러 종류의 만족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만족 포인트가 구심점을 잡지 못할 때 수 많은 다른 만족 포인트들이 덩달아 적절한 구심점을 잡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 기타 다른 만족 포인트들이 완급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다.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한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문화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먹이활동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먹거리를 채취하기 보다는

먹거리를 다스리고 추수한다. (채취하면 더 맛있다. 반면에 온종일 채취해야 하겠지만.) 추수하면서 곧바로 먹지 않는다. 사람은 먹거리를 다듬고 보관하고, 때를 따라 요리한다. 함께 먹기 위해 요리하고 먹여주기 위해 정성을 쏟는다. 라면 하나로 충분히 끼니를 때울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풍요로운 식탁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한다.(끼니와 식사는 차원이 다르다.) 오직 사람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한다. 오직 사람만 함께 마주할 식탁을 꾸린다. 오직 사람만 동물스러운 서열이나 격식 따위를 벗어던지고 사랑으로 음식을 즐긴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식탁을 꾸미지, 누리기 위해서 식탁을 꾸미지 않는다.(식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자. 식사예절로 율법주의를 감춤.)

예수님은 누리기 위한 식탁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다.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12:16-20)

잘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잘 먹고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영혼을 위해서 진수성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진수성찬이 필요한 것이다.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찬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다.

왜냐면 영혼의 만족이 모든 만족의 핵심이고, 이 핵심 만족이 구심

점을 잡을 때 다른 모든 만족들도 제 자리를 잡게 된다.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은 오직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을 실천하라는 명령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는 세상에서 출세하게 되리라는 말이다.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4:1-4)

여러분의 식생활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 지기를 축원드린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창세기 2장

Tag:

1절;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짐; 완성의 의미. 재창조도 가능함. 지속적 창조도.

2-3. 안식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심. 다시금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려고 함. 전체 교회가 동의하면 바뀔 수 있음.

-주일은 첫째 날이며, 주의 일을 하는 날임.

4절부터 창조의 새로운 버전.

익스테리어-인테리어 식.

5. 아직 비가 없음. 안개만 올라옴. 경작이 시작되지 아니함. 경작에 필요한 사람이 없기 때문.

7. 사람을 지으심. 빛으심. 생기와 생명. 성령을 부어주심.

8. 에덴동산의 창설. 진정한 인테리어.

9. 세밀한 인간 맞춤형 창조. 아름다울 것. 먹기에 좋을 것. 생명나무.

9. 선악과나무. 선과 악을 구별 지을 수 있는 과일.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 창세기는 교리적 설명 보다는 사실에 관한 서술을 선택함.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임.

-‘왜 생명나무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음. 왜 창조하셨지? 왜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왜 태어났니?

-악이란 선의 반대말이나, 선의 상대적 원리나, 창조의 부산물이나, 창조의 원료가 아니다. 악이란 하나님께는 역사적 존재이다.

-우리들에게 악이란 논리적 존재이고, 파괴적 존재이고, 소외(관계

단절)의 근원이다.

-마귀에게 있어서 악이란 감히 넘어서서는 아니 될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 실체는 거짓이었고, 교만이었고 욕심이었으며, 반역이었고, 도전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

11~;강들의 이름. 이미 예뻐있었던 것. 지금과는 다름. 흔적만 남아 있음.

15. 경작하며 지키라; 경작-세심한 돌봄이 필요함. 아름다움과 만족을 위함임.

지키라-경작과는 직무가 다르나 목적은 같음. 자동화로부터 지켜야 함. 생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생장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17. 선악과는 죽음에 이르게 함. (먹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1000년 후 영원히 죽음.-홍수로 1000년을 1/10로 단축하심.)영적 죽음.

영적 죽음에 대한 응급처치로 수치를 가리게 하시고, 제사를 통한 소통을 열어두심)

여성주의와 방송규제, 주제선정에서 선정적인 부분 제거. 사랑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고지순의 순례길이 펼쳐짐.